

금호타이어 이어 기아차 노조도 산별교섭 시작

대기업 夏鬪맨 지역경제 큰 타격

파업으로 이어질때 협력사 경영난 가중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한데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산별교섭에 들어갔다.

이들 대기업이 협상의 물꼬를 제대로 트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5.43%인 3천15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필요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지난 9일 쟁의대책위원회와, 확대간부위원회 등을 잇따라 가진 데 이어 10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호흡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정년 반기말에서 연말로 통합 연장 ▲정기상여금 50%

이상, 휴가비 15만원 상향조정 ▲가족·근속·안전·생산장려수당 인상 ▲퇴직금에 성과급 포함 ▲학자금, 무주택 용자, 의료비 지원 등 상향조정 ▲예경사 유급휴가 확대 ▲인사·경영 참가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 이어 올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병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4월 경기도 소하리 공장에서 대의원 대화를 열어 올해 임단협 안건을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천690원(8.9%) 인상 ▲매달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 ▲휴가비·유류비·명절 선물비 등 90만원 인상(현재는 230만원) ▲주간 연

속 2교대제 실시와 임금하락없는 생산직 월급제 전환 ▲매년 사업계획과 신차 개발계획,월별 판매전략 등을 노조에 통보할 것 ▲소렌토 후속모델(프로젝트명 XM) 북미공장 생산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로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입주체인 A사 대표는 “유가, 원자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영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광주공장이 올해까지 파업에 돌입하면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주 향토물산전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은 오는 12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향토물산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우스밀감(800g) 8천원, 갈옷원피스 8만원, 붉은팥(100g) 900원, 푸른콩(100g) 1천200원, 진미역(85g) 2천원, 순살붕장어(600g) 9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화순 타월 고급화 나선다

중기청 공동상표 개발 대상자 선정... 21개 업체 지원

화순지역 타월 생산업체들이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고급 타월 시장개척에 나선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지역 타월생산업체의 공동조합인 '광주·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이 올해 중소기업청 공동상표 개발사업의

제조업 분야 시범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1962년 설립된 광주·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은 화순지역 21개 타월생산업체로 구성, 전국 타월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세성

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는 화순 타월업체들을 규모화시켜 지역대표사업으로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 생산·판매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지역 타월업체들은 이번 공동상표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상표개발비 4천만원의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80억원 규모의 매출을 2011년까지 24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銀 민영화 지역정서 고려해야”

이임하는 정태석 광주은행장

“취임 전 마음속에 품었던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도 4년3개월의 재임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 행복합니다.”

정태석 광주은행장은 10일 “2010년까지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직원들의 애정 어린 박수속에 떠나게 돼 기쁘다”며 “최근 직원들의 격려 e메일은 가슴 찡한 감동으로 평생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무엇보다 각종 이권이나 대출 및 인사청탁 등을 받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재임기간 은행

의 결실한 성장속에서도 민영화작업을 마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광주은행의 민영화는 PPF구성한 뒤 지역 연고기업이 경영주체가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행장은 퇴임후 일정에 대해 “전남대 교수로 초빙돼 오는 8월부터 ‘금융시장’ 과목을 강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건설 GD마크 최다

자사 상품 12개 '우수디자인' 선정

금호건설은 자사의 디자인 상품 12개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08 상반기 우수상업디자인’으로 선정돼 건설업계에서 최다 GD(Good Design) 마크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GD마크를 받은 품목은 ▲환경디자인 부문에서 방배동 어울림의 해자정원 ▲주택설비용품류 부문에서 샤워시스템 ‘금호-로제’, 리첸시아 중동의 한글방화문, 이상봉벽지 ▲건축디자인 부문에서 리첸시아 중동 건축의 관, 실내 디자인, 모델하우스와 광주 갤러리 303 실내 디자인 및 모델하우스 등이다.

특히 리첸시아 중동의 한글방화문과 우편함 아트월, 광주 갤러리 303 모델하우스 등 총 3점은 하반기에 발표되는 분상 후보에 올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유업 “반대”

주유소 “찬성”

소비자 “유보”

정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주유소 상표표시제(풀사인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유업계는 반대를 하고있고 주유소업체는 찬성한 반면 소비자단체는 유보 입장을 보이는 등 3자간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풀사인제는 주유소가 SK에너지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걸고 해당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주유소에서 파는 제품품질에 해당 정유사가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1992년 도입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수직계열화해 있는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풀사인제를 폐지하고 정

주유소 상표표시제 폐지 추진 ‘3인 3색’

정유업 “반대” 주유소 “찬성” 소비자 “유보”

유사-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을 금지하며, 대리점과 정유소간 수평 거래를 허용하고 수입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석유제품 판매에 관한 부당표시 및 광고행위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석유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 주유소는 자체

상표나 여러 정유회사의 상표를 내걸면서 서로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유업계가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주유소업체는 15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풀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사적거래와 계약을 법으로 규제하

고 있는 국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풀사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특히 풀사인제 폐지로 과점체제로 굳어져 있는 정유사간 경쟁이 촉발되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가격도 인하될 것이고 그러면 주유소 판매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인하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풀사인제 폐지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파는 석유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뒤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광산업 기술개발·특허출원 중요”

오늘 광산업 신기술·특허 동향·지재권 설명회

‘LED(발광다이오드) 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10일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최근 5년간 국가별 LED 특허 출원건수는 우리나라가 3천121건으로 전 세계의

76%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의 성적표 만으로 ‘잠빛 전망’을 내놓을 수만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02년부터 국내 업체의 출원건수(865건)가 해외 업체(260건)를 앞지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는 4월 현재 242건에 그쳐 예상치가 726건에 머물렀다. 선진국이 이미 원천기술을 확보해 한계가 있는 데다 관련특허가 이미 대부분 출원됐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허 출원건수가 곧바로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단적으로 LED 조명의 경우 국내 기술수준은 아직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60~70% 가량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 지역에서 LED 산업을

필두로 한 광(光)산업 업체의 매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고 대규모 집적 단자인 ‘LED 밸리’까지 조성됐지만 기술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 분쟁 해결 등이 앞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허청 주최로 11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리는 ‘광산업 신기술 및 특허 동향·지식재산권 설명회’에서는 LED를 포함한 광산업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과 특허분쟁 사례 등이 소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관공실패 없애기 위해

보람상조와 함께 알 새가족을 모십니다.

다문화 지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문화 체험, 언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새가족 모집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문화 체험, 언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보람상조 고객센터: 02-260-0114

흙 퍼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니 여름철 휴가철이네요. 휴가철을 맞아 휴가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 060-700-3657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니 여름철 휴가철이네요. 휴가철을 맞아 휴가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휴가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